

권력을 찬탈한 아달라가 척결될 때 온 유다 백성이 기뻐함
중북 주사파 반란 세력이 척결될 때 대한민국이 기뻐한다!

성경말씀: 왕하11:1-21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롬15:4

성경에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중북 주사파 세력들이 벌이는 내란 수준의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 체제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 등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저지하고 있다.

묘하게도 성경에는 내란과 반란 쿠데타 등이 여러 차례 나온다. 즉 이런 일은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켜 한 왕조를 뒤집어엎으라고 하신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9,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는 사건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정권을 뒤엎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사례를 보여준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 예후의 반란과 하나님의 섭리

1. 예후의 반란과 하나님의 계획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의 군대 장관이던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사 대언자의 심부름꾼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아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아합 왕조의 악행, 특히 바알 숭배와 이세벨의 잔인한 폭정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합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셨지만, 때가 되어 예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다.

2. 예후의 행동과 아합 왕조의 몰락

예후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이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처단하였다. 이는 두 왕이 모두 아합 왕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후는 또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가져온 마녀,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았고, 그녀의 시체는 개들이 먹는 심판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후 예후는 아합의 남은 자손 70명을 모두 죽였고,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한 장소에 모은 뒤 그들을 몰살시켰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후의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의 죄악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루셨다. 아합 왕조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악한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실히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심(왕하10:29-30).

5. 교훈과 적용

예후의 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증명한다.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시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를 신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악한 정권과 세력들(종북 주사파 반란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장군이 이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능한 장면 정권을 붕괴시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원하시는 쿠데타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쿠데타나 내란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11장에 나온다.

열왕기하 11장 개요

열왕기하 11장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를 보존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달라가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장악한 사건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다윗 언약 삼하7:12-16

아달라의 통치는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실한 믿음과 용기가 돋보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조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하나 남은 어린왕자 요아스를 숨겨 보호하였다. 6년 뒤, 그는 군대장관들과 백성들을 규합하여 아달라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이를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아달라는 누구인가?

아달라는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조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려 했다.

이상한 아이러니, 여호람의 아버지는 경건하기로 유명한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의 아내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를 데려왔다. 이때부터 유다는 나라가 기울기 시작함, 아달라의 존재는 유다에 영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그녀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을 때, 이세벨처럼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하였다.

여호람은 아달라의 남편으로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아달라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켰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으며, 결국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음을 맞았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었다.

왕하8장, 대하21장, 여호람의 통치

여호람은 선왕 여호사밧의 맏아들로 6명의 동생들이 있었다(대하21:4).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동생들을 모두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죽였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 집안의 딸 아달라를 아내로 맞아들여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

그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은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싸우려 갔으나 오히려 에돔군에게 크게 패해 도망쳤다. 또한 그의 시기에 립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대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 블레셋 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살던 아라비아인들이 쳐들어와 왕궁의 모든 재산과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을 모두 데려갔고 남은 것을 막내아들 여호아하스(아하시야)뿐이었다.

이 일 후에 여호람은 불치병에 걸쳐 2년 뒤 창자가 빠져 고통 속에 죽었다.

아하시야: 여호람과 아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는 외할아버지 아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왕으로, 어머니 아달라의 악한 통치 철학을 따랐다. 그는 왕하9-10장에 이룩된 대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 실행된 예로 볼 수 있다.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은 후, 아달라는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는 악한 계획을 실행하였다.

왕하11:1, 씨를 말리려 함

그녀는 자신의 손자들까지 죽이는 극악한 행위를 통해 다윗 왕조를 완전히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는 그녀가 유다와 다윗 왕조를 사탄의 도구로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아달라는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

아달라의 반역은 권력 욕망과 바알 숭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면서 유다의 왕권이 공석이 되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고 여겼다. 또한, 그녀는 다윗 왕조를 끊음으로써 자신과 북이스라엘 왕조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반역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여호야다는 왜 아달라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자가 등장한다. 그 사람이 여호야다이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였다. 아달라의 통치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왕하11:2, 아하시야의 동생, 이복 누이, 여호야다의 아내(대하22:1),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출함
여호야다는 다윗의 씨 중에 단 하나 남은 요아스를 6년간 성전에서 숨겨 보호하였고, 적절한 때에 군대장관들과 백성들을 모아 아달라를 제거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실 구속 역사를 보존하였다(왕하11:10-12). 대하23:3, 왕의 아들이 통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와 정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나 정권은 결국 혼란과 내란을 초래한다. 아달라의 반역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성경은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이다.

내란이 멈춘 후의 결과

여호야다가 아달라를 제거한 후,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였다.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으며, 성전을 정화하고 바알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였다(왕하11:17-18). 이러한 영적 회복은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백성의 기쁨(왕하10:20)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개입

아달라의 반역 사건과 유사하게, 에스터서에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터와 모르드개를 통해 이를 막으시고, 하만의 계획을 뒤엎으셨다. 하만이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는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이다. 아달라와 하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확증해준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친중 종북 주사파라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해 왔고 지금 내란 수준의 패악질을 펴고 있다. 입법 독주, 29명 탄핵, 불법 예산 세우기 등등

1. 종북 주사파의 정체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세력이다.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북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활동하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여러 정책과 법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며, 남북 평화라는 명분 아래 북한을 옹호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종북 주사파는 과거 한국 전쟁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며, 반미와 친중, 친북 노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왜곡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반기독교적 정서를 조장하며,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독교의 도덕적 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이념을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를 훼손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 종북 주사파의 활동

구체적인 사례로 2013년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그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거 서울시교육감으로 활동했던 조희연이 친북적 교육 정책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동조를 확산하려는 대표적인 행위로 비판받아 왔다.

이들은 과거에도 국가 반역적 행위로 수차례 논란이 되었으며,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이어왔다.

3. 종북 주사파의 내란 시도

종북 주사파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세워 주신 대한민국을 인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자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내란 시도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친북적 사고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 내에서는 줄탄핵을 시도하며 합법적인 정부 운영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죄로 묶어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4.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달라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종북 주사파의 시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시고, 이를 위협하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기도하며, 종북 주사파의 악한 음모를 물리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결론

롬15:4,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쿠데타가 있고 사탄이 일으키는 쿠데타가 있다.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속박 가운데 가두기 위해 종북 부사파, 바알 숭배자들 같은 사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무지와 속박 가운데 두려 한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예후와 여로야다 같은 사람들을 써서 제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다. 이번 12.3 계엄령도 그런 의미에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되고 있다, 국민이 깨도 있다. 아합, 이세벨, 다달랴, 바알, 사탄, 마귀,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양심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산주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낙태 반대

마귀 반대, 하나님 찬양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갈5: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